

다니엘서 - 제155번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밝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나란한 여정

Jeff Pippenger

2024-03-24

우리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을 하나님의 마지막 날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확인하였고, 마지막 장과 관련하여 첫째 절을 사용함으로써 벨드사살로 대표되는 그 마지막 날 백성의 예언적 특성들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언약 백성은 첫째 천사의 운동에 속한 밀러파와, 셋째 천사의 운동에 속한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밀러파는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하였으며, 그 비유는 마지막 날들에 글자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

“나는 종종 열 처녀의 비유로 인도된다. 그들 중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였다. 이 비유는 특별히 이 시대에 적용되므로 글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또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제삼천사의 기별과 같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현대진리가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0년 8월19일.

마지막 때의 두 운동의 경험은 재림주의의 경험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또한 재림 신자들의 경험을 예시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3.

밀러주의자들은 첫째 천사 운동을 대표했으며, 그들의 경험은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로 표상되었다. 1856년에 빌라델비아적 밀러주의 운동은 라오디게아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1863년의 반란 때에는 더 나아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전환되었다.

14만 4천은 셋째 천사의 기별 운동을 대표하며, 그들의 경험은 빌라델비아 교회로도 표상되었다. 1989년에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고, 2001년 9월 11일에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이 시작되었으며, 2023년 7월에는 다시 빌라델비아 운동으로의 전환이 도래했다.

벨드사살, 곧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빌라델비아 운동을 대표하는데, 그 운동은 밀러파의 빌라델비아 운동을 글자 그대로 반복한다. 마지막 환상의 첫 절은 그 마지막 때의 백성을 나타내며, 마지막 환상의 마지막 증언은 마지막 환상의 첫 증언과 일치해야 한다. 다니엘 12장의 정결의 과정은 지식의 증가와 그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두 부류를 드러낸다. 벨드사살은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자들을 궁극적으로 대표한다. 다니엘 12장에는 밀러파 운동의 뜻이 되었던 예언적 진리들이 적어도 다섯 가지 있으며, 그것들은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반드시 반복되어야 한다.

첫째는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만들어 내는 정화 과정으로, 그리하여 처음과 마지막 단계 모두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한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끝날 때까지 봉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왕래하겠고 지식이 더해지리라. ... 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는 이 말들이 끝날 때까지 닫히고 봉해졌음이라. 많은 이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며,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4, 9, 10.

지혜로운 자와 악한(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밀러파에게는 1798년, 14만 4천에게는 1989년에 해당하는 "끝의 때"에 열려진 지식의 증가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정신적으로 분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재림운동이 열 처녀의 비유의 체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해가 없이는 마지막 세대의 "끝의 때"가 언제 도래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기별이 봉인이 풀렸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점진적 전개에 기초하여 "생사(生死)를 가르치는" 결과로 이끄는, 재림운동의 체험이 삼단계의 시험 과정이라는 이해가 없이는 모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의 높은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벨드사살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시련을 받는" 것으로 표현된 정결 과정을 자신들이 통과했다는 것을 아는 한 무리를 대표한다. 바로 그 삼단계의 정결 과정은 성령의 사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들은 것을 말하며,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요한복음 16:7-13.

슬기로운 처녀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는 그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즉 권고하거나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다니엘서 12장에서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거나 미련한 처녀가 되게 하는 바로 그 동일한 세 단계와 같다. 예수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규정하신 그 기별은 다니엘서 12장에서 슬기로운 자와 악인을 구분해 주는 "기름"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은 자기 세대를 위한 지식의 증가를 이해해야 하며, 그 지식에는 자신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인지 슬기로운 처녀들인지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

요한은 거룩한 환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보여 주심을 받았다. 그는 등불을 다듬어 켜고 있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 대표되는 무리를 보았고, 환희에 차서 외쳤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도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려 함이며,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르느니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많은 이들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살아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한 모든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자기의 본분을 다하였다면, 이 기별은 이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였다. 그 진리는 열 처녀에 의해 선포되었어야 했으나, 그들에게 임한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무리에

합하기 위해 필수적인 준비를 한 이는 다섯뿐이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필요했다. 이 선포는 이루어져야 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따라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던 많은 이들은,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시험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묘사된 다른 천사가 그의 기별을 선포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시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부름이 주어질 것이다.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거기서 나오라.'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성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과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우리가 되었다. 모든 민족이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은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고....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거기서 나오라. 이는 그의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 [요한계시록 18:2-5].

"이 장의 각 절을 주의 깊게 읽되, 특히 마지막 두 절은 더더욱 그러하라: '촛불의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겠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큰 자들이었고 네 주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음이라. 또 그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느니라.'"

"열 처녀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것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문이 닫히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로 상징된다. 지금은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분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권한도 없다.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도 있으며, 이들은 겉으로는 슬기로운 자들처럼 보인다." Manuscript Releases, 제16권, 270쪽.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의 때에 남녀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도록 부름받은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이거나 미련한 처녀"로 상징된다. 요한이 본 무리 가운데 "등불을 손질하여 밝히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상징된 자들을, 요한은 또 "성도의 인내"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실천하며, 자신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임을 알아야 하는 십사만 사천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슬기로운 처녀이거나 미련한 처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다니엘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는" 것으로 표현한 그 경험을 되풀이해야 한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마치 새 노래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되어 하나님과 어린양께 드러지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요한계시록 14:3-5.

다니엘 12장에는 최소한 다섯 가지 진리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첫째 천사의 밀러주의 운동과 관련된 진리들이며, 십사만 사천의 운동에 의해 반복되고 더욱 온전히 이해될 것이다. 그 진리들 가운데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와 관련된 세 단계의 정결 과정이다. 윌리엄 밀러가 예언적 시간에 관해 처음으로 이해한 진리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으며, 그 진리는 다니엘 12장에서 제시되어 있고, 거기에서 언급된 밀러주의 역사적 진리들 가운데 첫째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들을 감추고 그 책을 봉하여 마지막 때까지 두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강둑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 저쪽에 서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은 언제이겠나이까 하더라. 내가 들으니,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될 것이며, 또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지게 하기를 마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말하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지고 봉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없을 것이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4-10.

이 구절은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봉인된다는 말로 시작하여,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봉인된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다니엘의 말씀이 처음 봉인되고 마지막으로 봉인되는 사이에,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의 맹세로 된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일 것이며,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일을 이루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 맹세로써 증언하신 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물 위에 계신 그분이었다. 다니엘은 히데켈 강 한쪽 강둑에 한 천사를, 다른 쪽 강둑에 또 다른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질문을 던졌으며 그 질문에 물 위에 계신 그분이 대답하셨다. 그 질문은 '얼마 동안인가?'였다. 이는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던져진 질문의 처음 두 단어와 동일하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자가 말하고 있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던 어떤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상과 황폐하게 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성소와 군대가 함께 짓밟히도록 내어줌을 당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이겠느냐?"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3, 14.

두 대화 모두에서 동일한 예언적 구조가 나타나지만, 8장에서는 다니엘이 히데켈 강이 아니라 올라이 강가에 있다. 8장에서는 한 천사(성도)가 말하고 있는 그 특정한 성도에게 "얼마 동안입니까?"라고 말했다. '그 특정한 성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팔모니'이며, '놀라운 계산자' 또는 '비밀을 헤아리시는 분'을 뜻한다. 8장에서는 예수(그 놀라운 계산자)께서 말씀하고 계셨고, 다른 성도가 예수(그 특정한 성도)께 "얼마 동안입니까?"라고 물었다.

열두 장에서, 물 위에 서 계신 이에게 히데켈 강의 둑 가운데 한쪽에 있던 천사가 "얼마나 오래"라고 묻는다. 이 두 구절은 줄마다 줄을 맞대어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덟 장의 첫 번째 질문은 "먼저는 이교주의에 의해, 그다음에는 교황주의에 의해 행해지는 성소와 군대의 짓밟힘에 관한 그 환상이 얼마 동안인가?"이며, 열두 장의 질문은 "이 기이한

일들의 끝까지 얼마나 오래일 것인가?”이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고 물 위에서 계신 기묘한 계산자 팔모니가 맹세로 대답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일 것이며,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기를 마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올라이 강과 히데겔 강의 질문은 ‘이교와 이어 교황주의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으면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흠어지는 그 환상이 얼마 동안 지속되겠는가?’이다. 그에 대한 답은, 짓밟힘은 1798년에 끝나며, 그때 팔모니가 밀러파 성전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할 1844년, 곧 46년 뒤에 그 일이 끝난다는 것이다.

열두 장에서 다니엘은 그 대화를 들었으나 “나는 깨닫지 못하였노라”고 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께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했다. “오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한가?” 그가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을 대표한 것이었는데, 이는 전체 대화가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봉해진다는 두 차례의 언급 사이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1798년에 봉인이 풀린 진리를 이해하도록 윌리엄 밀러에게 주어진 갈망을 대표했으며, 그가 처음으로 인식하도록 인도된 진리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성취되어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흠어지던 기간 동안 먼저는 이교에 의해, 그다음에는 교황권에 의해 성소와 군대가 짓밟혔다는 것이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밀러의 갈망은 다니엘의 갈망으로 표상되지만, 밀러의 이해는 불완전했다. 다니엘은 밀러의 갈망을 대표하고, 벨드사살은 그 일과 그 환상을 완전히 이해한 자들을 대표한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밀러파의 경험을 이루었던 중요한 진리들이 적어도 다섯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14만 4천의 역사 속에서 상응하는 대응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중 하나는 그들이 세 단계의 시험 과정으로 이루어진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하였고 자신들이 그 비유를 성취하고 있음을 이해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이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라는 초석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그중 다섯은 슬기 있고 다섯은 미련하였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함께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며 잠들었더니,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하거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할 수 없나니 우리와 너희에게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였더니, 그들이 사라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오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지극히 위태로운 때를 살고 있으며,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구하는 일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어리석은 처녀들의 본을 따라,

그때 설 수 있는 품성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손님들이 불려 들어와 살피심을 받는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려 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곧 당신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할 혼인 예복을 입을 때이다.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구걸하지만, 그들의 요청으로는 그것을 받지 못한다. 이는 위기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기르는 일로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상징한다. 마치 그들이 이웃에게 가서 '당신의 품성을 내게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것이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꺼져 가는 등불에 자기들의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품성은 양도될 수 없다. 그것은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시기 동안 의로운 품성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혹독한 경험을 통과하고 위대한 스승에게서 교훈을 배우며, 시험 가운데 인내를 드러내고 옮길 수 없는 산들도 옮길 만큼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형성된 그 품성을,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길은 마련하지 않으셨다. 사랑의 향기를 전해 주는 것, 곧 다른 이에게 온유와 사려 깊음과 인내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인간의 마음이 다른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부어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성품의 측면이 특별한 유혹을 통해 드러나게 될 날이 오고 있으며, 그 날은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 원칙에 끝까지 충실하며 믿음을 끝까지 발휘하는 자들은, 이전에 주어진 유예의 시간 동안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신실함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성품을 빚어 온 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길러, 그의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다른 이에게 마음의 헌신과 고결한 정신의 자질을 줄 수 없으며, 도덕적 능력으로 그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서로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없이는 심판에서 설 수 없는 의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성품 형성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기도로 깊이 숙고하고, 신성한 모범을 따라 자신의 성품을 빚어야 한다. The Youth Instructor, 1896년 1월 16일.